

지역 매아리

부안 변산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 실시

부안군 변산면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등 자립사각지대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위험에 처한 고위험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특정급여(기초연금, 장애연금, 아동수당)수급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소득인정액이 0원인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일반재산이 없거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고위험이 예측되는 47가구에 대해다.

또 특정급여(기초연금, 장애연금, 아동수당)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 이거나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2019년 5만 2102원) 미만인 경우의 대상자 600가구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공적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 2개 완료
경계분쟁 해소로 '큰 호응'

정읍시는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초산 1지구와 신대인 1지구의 조정금 산정을 의결함으로써 2018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산 1지구와 신대인 1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해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라 새로운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편익이 예상된다.

특히, 신대인 1지구는 향후 신대인 2지구 등과 연계해 신대인 도심 전체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안내하게 된다. 이후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조정금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이반에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를 국비 약 9억 원을 확보해 완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만든다

정읍시, '도탈랜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최근 정읍시청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에서 '도탈랜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관광의 흐름과 여기문화의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김승범 시의원, 박일 시의원, 연구진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용역기관의 시 관광자원의 여건분석 결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관광 개발·문화콘텐츠·관광진흥 분야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의견으로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콘텐츠와 숙박 시설 등 복합시스템 구축 ▲지역특화자원 활용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확장성을 더하는 방안 ▲소비자들이 원하는 감성 있는 정읍 관광브랜드 재정립 ▲기존 주택가를 활용한 민박사업 등 주민밀착형 사업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생산 농축산물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 등이 제시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유 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차별적인 관광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중앙부처의 관광정책 분석과 추진전략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콩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창군 공음면 김복성씨(57). 김씨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의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농생명식품수도로 한걸음 가까이

'콩의 달인' 고창 공음 김복성씨 농림부 신지식농업인 선정

"취직 않고 고된하고 더 좋은 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제 농사의 비결입니다."

'콩의 달인'으로 불리는 고창군 공음면 김복성씨(57). 김씨는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의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 중 올해 전국에서 단 20명(전북 2명) 밖에 선정되지 못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신지식 농업인의 자부심이 크다.

김씨는 1985년부터 34년간 고창군 공음면에서 매년 150ha 이상의 콩을 재배해 오고 있다. 특히 김씨의 농장에서는 다양한 신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 20여년간 개인 시험포를 운영하며 콩과 밀 종자의 도사가 됐다.

김씨는 "값싼 외국 농산물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지역의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가져, 노동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고급화와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

않단 위기가구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20여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영농일지를 쓰며 시비법과 기상상황에 따른 작물변화를 기록했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다수확 우량품종인 '소미'를 개발했고, 우량 콩 종자를 국립종자원과 종재배 농가에 보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그런 시합들이 결국 경험으로 남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사꾼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잡초가 많이 생기는 밭에서는 밀식재배로 잡초 생육을 막고, 비옥한 땅에서는 주간 간격을 넓게 하는 것도 이 같은 위기와 경험에서 얻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식이다.

김씨는 고창공연구회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의 농업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끝으로 "고창군이 최근 토종종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며 농생명문화 살리기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농민들의 협력이 시너지를 내면, 농생명식품수도 그리 먼 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화합의 한마당 큰잔치 제1회 부안읍민의 날 행사 성료

부안읍(읍장 박연기)은 최근 부안수생정원 입구 썬키스로드에서 '제1회 부안읍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및 부안군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안군립농악단의 풍물놀이와 주민자치센터의 라인댄스, 노래교실 공연이 식전행사로 펼쳐져 흥을 돋웠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읍정 발전에 공로가 큰 읍민 5명에게 읍민의 장을 수여했다.

제1회 읍민의 장 수상자는 효열장에 이순주씨, 공익장에 김정락씨, 산업장에 이영식씨, 문화체육장에 신민준씨, 애향장에 조광재씨가 영예를 안았다. 또 김현철 전 부안읍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특히 제1회 부안읍민의 날을 맞아 부안읍 이장협의회(회장 김재희)와 부안시해로터리클럽(회장 김정이



부안읍이 최근 부안수생정원 입구 썬키스로드에서 '제1회 부안읍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안군 근농민재육성장학금 각각 100만원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위안공연에는 부안 출신 국민가수 진성의 특별공연과 포스댄스컴퍼니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민속경기로는 부안읍 OX 퀴즈대회가 열려 인기를 끌었고 경품추첨도

진행됐다.

박연기 부안읍장은 환영사에서 "2만 부안읍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됐다"며 "부안읍민이 하나가 돼 2023년 세계캠버리를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세계호남향우회, 정읍 황토현 전적 찾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세계호남향우회원들이 3일 정읍 황토현 전적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24개국 50여 개 도시 지역의 호남향우회 지도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대회'를 위해 전북, 전남, 광주를 찾았다.

지난 2015년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대회' 행사는 당시 이낙연 지사(현 국무총리)

의 호남지역 개최 제안으로 2019년 목표를 시작으로 2017년 전북,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됐다.

정읍 방문은 예정에 없었으나, 올해 황토현 전승일(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을 기념하고 기리고자 유진섭 시장의 초청으로 결정됐다.

유 시장은 황토현을 방문한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황토현 전적을 관광하고 구민사에서 참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시천주(侍天主), 사인여천(事人如天), 인내천(人乃天)으로 이어지는 동학의 사상은 곧 민주주의의 근원 철학이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대회'는 오늘 목포에서 개최된다.

윤수화 인도네시아 호남향우회장을 비롯한 8명이 자랑스러운 호남인의 상을 수상한다. 더불어, 호남권 41개 시군구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태풍 복상에 따른 행사 일정 일부 변경

2~3일 예정된 고창군의 온천축제·모양성제가 태풍 복상에 따라 일부 취소·연기 돼 운영된다.

2일 고창군은 제18호 태풍 미타에 군전역이 직접 영향권으로 포함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온천축제'와 이튿날 열린 '모양성제' 일부 행사를 취소·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천축제'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심포지엄과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진행하려 했지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

에 들어가면서 행사를 취소·연기하기로 했다. 2~6일 계획된 온천축제는 일정을 변경해 5~7일 진행된다.

'모양성제' 역시 당초 3일 오후 예정된 거리퍼레이드와 고을기울임 행사가 다음날(4일) 오후로 연기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면서 참가자 안전 등을 고려해 부득이 연기를 결정했다"며 "축제 일정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sanwine.com